

##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박 희 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기자들과 방송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종군기자정신으로 취재활동을 맹렬히 벌려 철학적깊이가 있고 혁명성과 전투성, 호소성이 강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5권 15페이지)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기사집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출판보도물에서 기사는 보도선전과 사상교양의 기본수단의 하나로서 출판보도물의 위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기사는 사람들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 혁명에 대한 옹바른 관점과 주인다운 태도, 죽어도 버리지 않는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려면 기사에서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심고 현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새롭고도 깊이있는 언어구사를 통하여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내야 한다.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잡아야 한다.

기사의 종자는 기자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의 요소들이 뿌리내릴수 있는 바탕이 있는 사상적알맹이이다.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잡는것은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종자는 기사의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사의 핵이며 기초이다. 소재는 종자를 꽃피울수 있는 생활바탕, 자료이며 주제는 종자에 의해 규정되며 사상은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 따라서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잡아야 사회정치적의의가 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대한 기자의 사상적주장을 뚜렷이 부각시킬수 있으며 모든 자료를 잘 맞물려나갈수 있다.

정론 《조선의 기상》(《로동신문》 1981년 3월 23일), 덕성기사 《사랑은 대를 이어》(《로동신문》 1984년 12월 9일), 론설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정론 《심장에 불을 달라 혁명군가여!》(《로동신문》 주체88(1999)년 8월 23일), 정론 《위대한 우리 인민》(《로동신문》 주체104(2015)년 10월 7일) 등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으며 오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명기사들은 모두 철학성이 있는 종

자를 심은 기사들이다.

정론 《조선의 기상》을 실례로 들수 있다.

사람도, 산천도, 사회도 몰라보게 개조되는 우리 조국의 새로운 숨결과 속도, 새로운 발전면모와 기백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 일어난 1970년대의 역사적변혁을 깊이있게 분석일반화한 이 정론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글이었다.

정론에서는 조선의 기상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진의 기상, 혁신의 기상, 청춘의 기상이라는것을 밝힌 다음 이 기상이 있어 우리 조선이 빛나고 우리 혁명의 앞길이 영원히 빛을 뿌린다는 사상을 격조가 높으면서도 품위있게 해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론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제시하신 당정책적문제들과 관련한 자료들, 당의 기초축성시기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지휘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업적과 관련한 자료들을 적중한 위치에 안받침해주었다.

이 정론의 주제와 사상은 1970년대의 우리 조국의 기상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이라는 심오한 종자에 기초하고있으며 정론에 반영된 모든 자료들은 종자를 꽃피우는데 북돋워졌다.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심은것으로 하여 이 정론에서는 주제와 사상 등 모든 요소들에서 철학적심도를 보장할수 있었다.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이 정론은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명기사로 될수 있었다.

철학성이 있는 종자는 해당 시기 당정책적요구에 맞으며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에 해답을 줄수 있는것이여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인 발견이 있는것이여야 한다.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잡자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사물현상들과 사실, 사건들, 자료들의 본질을 정확히 가려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속에 들어가 해당 시기 당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문제, 당정책관철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란 해당 시기 당정책관철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를 말한다.

출판보도물에서 기사들을 내보내는것은 사람들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각오와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치적문제점들과 그 의의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공감시키고 과학적인 인식을 주려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주제로 내세워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줄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혁명관, 인생관을 심어주어 기사의 인식교양적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다.

실례로 정론 《백두산눈보라》[《로동신문》 주체89(2000)년 3월 21일]에서는 《백두산의 눈보라는 선군혁명령도의 총대바람》이라는 종자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혁명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처럼,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장군님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할수 있었다.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는 사실이나 론설, 정론, 참판기, 긍정교양기사, 실화와 같이 비교적 부피가 있는 기사들에서는 물론 보도기사나 단상을 비롯한 크지 않은 기사종류에서도 내세울수 있다. 중요한것은 남들이 평범하게 스쳐보내는 자그마한 사실과 사건속에서도 당정책관철에서나 사회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도출해내는것이다.

실례로 보도기사 《시대의 대기념비로 위용떨치는 서해갑문》[《로동신문》주제95(2006)년 10월 4일]에서는 수십년동안 서해갑문을 참관한 참관자들의 인원수로부터 출발하여 서해갑문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멸의 업적,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에 떠받들려 서해갑문이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위용떨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물론 사실이나 론설과 같은 기사들에서 철학적인 문제자체를 취급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순수 《철학적인 문제》를 취급할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주제로 제기할 때 해당 기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할수 있다.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내야 한다.

철학성이 있는 종자를 잡고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지 못한다면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려면 우선 기사를 원리적으로 써야 한다.

제기된 문제를 원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써야 기사의 주제사상을 사람들에게 깊이 파악시킬수 있다. 근본리치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며 내용을 전개하지 않고 수박겉핥기식으로, 들이먹이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사람들을 잘 납득시킬수 없다.

기사를 원리적으로 쓰는 문제는 사실이나 론설같은 기사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다. 기사를 원리적으로 쓴다는것은 결코 론리적인 체계에 따라 딱딱하게 쓴다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성격형상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긍정교양기사나 실화와 같은 기사는 물론 사실과 사건을 전달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쓰는 기사들에서도 글을 원리적으로 써서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밝혀야 한다.

그 어떤 개념이나 리론에만 원리가 있는것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벌어지는 사실과 사건들도 그것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근본리치가 있다.

세상에는 근본리치를 떠나서 현상이나 결과만 있는 사실과 사건이란 없다. 따라서 해당 사실과 사건의 동기나 제기, 원인과 결과 등을 밝혀내면서 원리적으로 써야 기사의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다.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려면 또한 문제를 력사적으로 보고 써야 한다.

문제를 력사적으로 보고 글을 쓴다는것은 사물현상을 그 발생, 발전과정속에서 보고 글을 쓰는것을 말한다.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깊이있게 밝혀내려면 그것을 발생발전의 력사적과정속에서 깊이있고 무게있게 써야 한다.

문제를 역사적으로 보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기사에서 취급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역사적자료들을 적절한 위치에 잘 안받침해주어야 한다.

정론 《심장에 불을 달라 혁명군가여!》를 실례로 들수 있다.

이 정론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첫 사랑은 음악이라는 유명한 인생지론을 내놓으시고 음악을 한생의 반려로, 동지로 삼아오시였다는 자료, 어느해인가 원쑤들이 신성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날뛰고있던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이제 중히 가지고계시던 대단한것을 내려보내겠다고 하시며 노래 《천만이 총폭탄되리라》의 악보를 보내주시어 일군들을 놀라게 한 자료를 비롯한 전형적인 자료들과 함께 빠리콤문의 불길의 타오른 후 국제로동계급의 단결과 해방투쟁을 호소하며 첫 로동자합창단이 부른 노래 《인터나쇼날》에 대한 자료, 증오야 불타올라라, 심장이 뛰여라라고 하며 쏘베트인민을 히틀러강도배들을 물리치는 결사전으로 불려일으킨 쏘련군대의 붉은기합창단이 부른 노래 《정의의 싸움》에 대한 자료, 1900년 우리 나라에 51명으로 구성된 첫 군악대가 조직되었으나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을사5조약》의 날조에 이어 그 존재를 끝마쳐야 했던 비극적인 자료를 비롯한 풍부한 역사자료들도 적극 발굴하여 인입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들은 기사에 반영된 시대상을 보다 넓게 확대하여줌으로써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문장과 표현들을 잘 골라써야 한다.

세련된 문장과 표현은 제기된 문제의 론점들이 통속적으로 안겨오게 하여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정론 《조선의 기상》의 몇대목을 보기로 하자.

《건전하고 활력에 넘치는 심장을 떠나서 높뛰는 맥박을 생각할수 없듯이 시대의 정신이며 인민의 숨결이며 혁명의 기백인 오늘의 조선의 기상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뇌수, 위대한 심장과 한피줄로 꿬을래야 꿬을수 없이 잇닿아있는 위대한 기상이다.》

《진정 눈부시게 전진하는 오늘의 조선의 기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려는 위대한 의지가 낳은 혁명정신이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전투적기백이다.》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항상 조선혁명의 리익, 주체위업완성의 립장에서 보고 하나의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여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견지에서 기준을 세우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현상유지나 답보가 아니라 전진과 비약의 각도에서 모든 사물을 대하는 참으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비범한 혁신적안목,

모든 일에서 항상 소소한 성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을 목표로 내걸고 대답하고 통이 크게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

이것으로 하여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서유럽식가극대신에 현대문예부흥의 서광이 비겼다고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혁명가극의 본보기가 조선땅에서 창조되었고 잇달아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의 모든 분야, 모든 령역에서 혁신의 메아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정론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나 직함을 직접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장군님의 사상과 뜻, 열정과 기백, 비범한 령도력과 향도의 예지에 대하여 조선의 기상이라는 은유적인 어휘로 대답하고 능란하게 구사함으로써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시

대의 벽찬 숨결을 로속하게 형상하였다.

이렇게 정론에서는 197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승화된 우리 조국의 약동과 전진이 안고 있는 의미와 이 위대한 전환의 요인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조선의 기상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증하고있다.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도록 문장과 표현을 골라쓰는데서 철학적인 양상이 강한 문장이나 표현을 람발하지 않도록 류의하여야 한다. 기사종류별에 따라 서술방식과 문체적특성이 다른것만큼 해당 기사의 종류에 맞게, 구체적인 문맥에 맞게 철학적인 양상의 문장이나 표현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

우리는 기사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잘 알고 기사창작에 적극 구현하여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삶과 투쟁의 진리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는 명기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기사, 철학적깊이